

인종 차별과 신학사상

Apartheid und Theologische Denken

남아공화국에 있어서의 Apartheid와
신학적 입장에 대한 논고

전광식

서언(緒言)

- I. 근년(近年)에 있어서의 Apartheid의 실제상황
 - II. Apartheid의 역사적 배경
 - III. Apartheid의 정치사상적 배경
 - IV. Apartheid와 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기저와 논의
 - V. Apartheid에 대한 제 기독교 종파의 입장과 반응
- 결어(結語)



전광식,

남덕유산 아래 화림동 계곡의 새들마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신학, 기독교 교육학, 철학(고신대, M.Div, M.A.)을 공부하고 대구에서 신학교 강의와 교회 봉사를 하다가 1985년 봄에서 90년 봄까지 독일의 Regensburg(Ph.D.), München대, 영국의 Oxford대학에서 고대철학과 독일 관념론을 전공하다. 현재 고신대학에서 철학 및 기독교 철학 담당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본지 「통합연구」 편집인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Die Geisontologie und das Transzendenzproblem bei Platon und Hegel」,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있다.

ZUSAMMENFASSUNG

Dieser Aufsatz gliedert sich folgenderweise:

Einleitung

- I. Gegenwärtige Situation der Apartheid in Süd-Afrika
- II. Historischer Hintergrund der Apartheid
- III. Politisch-anschaulicher Hintergrund der Apartheid
 1. Afrikaner Broederbond
 2. Ideologie der National Party
- IV. Theologische Grundlage und Diskussionen der Apartheid und Nationalismus
 1. Calvinismus und Nationalismus
 2. Biblisch-hermeneutische Betrachtung über Apartheid
 3. Einflüsse des Abraham Kuypers und Neo-Calvinismus auf Apartheid
- V. Stellungnahmen der verschiedenen christlichen Denominationen und Organisationen auf Apartheid
 1. Römisch-katholische Kirche
 2. Lutherische Kirche
 3. Dutch Reformed Church
 4. Cottesloe Erklärung und Christian Institute
 5. Mitteilung des South African Council of Churches
 6. Koinonia Erklärung

Schluß

Unter dem Titel 'Apartheid und Theologische Denken' behandle ich Apartheid in Süd-Afrika in bezug auf theologisches Denken. Nach dem ich sowohl die gegenwärtige Situation als auch die politischen und historischen Hintergründe der Apartheid geschildert habe, stelle ich die theologische Grundlage der Apartheid und die kirchlichen Positionen in Süd-Afrika dar.

Es ist sehr bedauerlich, daß einige Denominationen bzw. Denker des südafrikanischen Christentums wie DRC die Apartheid mit dem theologischen Argument rechtfertigt und sogar stark unterstützt haben. Ihre theoretische Verteidigung für die Apartheid gründet sich hauptsächlich auf ihre unrichtige Auffassung des biblischen Bundes: sie sprechen nicht nur von einem Bund zwischen Gott und Menschen durch Jesus Christus und Glauben an ihm, sondern auch von einem Bund durch Blut bzw. Familie.

Bedauerlich ist, daß die politische Theologie des weißen Afrikaans die angeborene Überlegenheit der weißen Rasse den schwarzen oder farbigen behauptet, das kosmopolitanische Gedankengut zurückweist, und das christliche und humanistische Versöhnungsprinzip nicht kennt.

Bedauerlicher ist, daß viele kirchliche Führer und Theologen ihre Position mit pro-Apartheid nicht als unbiblisch, unhumanistisch, barbarisch anzuerkennen und zu bekennen sind.

Am bedauerlichsten aber ist, daß wegen unrichtiger (zumindest unbiblisch) Christen in Süd-Afrika die Evangeliumswahrheit unseres Gottes unverstanden bzw.

mißverstanden und den Namen und die Herrlichkeit unseres Gottes blasphemiert werden können.

Unser Fazit: Unser Gott ist der Gott aller Völker und aller Menschen.

서언(緒言)¹⁾

Hegel에 의하면 세계사의 이념은 한 사람만이 자유하던 아세아적 세계로부터, 몇 사람이 자유했던 회랍, 로마적 세계를 거쳐, 마침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게르만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로 지향한다고 한다. 헤겔의 이러한 역사철학의 관점을 빌리자면, 현대가 그 마지막 단계라고 사료되는 바이나, 금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 및 기본권에 관한 숭한 선언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직도 세계 도처에 그러한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다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 인권과 생활이 제한되거나 구속되는 경우는 공산주의같은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 체제에서는 물론 인종차별같은 보다 근원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 이 인종적인 문제는 대개 피부색이나 민족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 인종차별 문제가 논해지는 것은 인디언이나 흑인 또는 유색인종의 차별이 여전히 운위(云謂)되는 미국같은 선진 민주사회에도 있지만, 역시 가장 대표격으로는 남아연방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을 들 수 있다. 화란 자유대학의 선교학 교수인 Johannes Verkuyl은 남아에 있어서 인종차별 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전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남아공화국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종문제에 직면해 있는 나라도 없고, 또 그 나라의 장래가 그 국민이 하나의 복수인종적 사회를 지향하여 나아가는지 하는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달려 있는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남아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의식적으로 복수인종적 사회의 정착을 거부하고, 인종차별(Apartheid)의 이데올로기와 그 실천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 본고는 본래 필자가 대학원에 다니던 1979년도에 쓴 원고로서, 그간의 여러 변화들을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많이 보충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2) James Daane, The Anatomy of Anti-Semitism and Other Essays on Religion and Race(Grand Rapids: Eerdmans, 1965), p.6.

셋째, 남아의 인종차별은 단순히 그 나라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어와 혈통에서 불가피하게 그들과 관련된 국민들과 그들의 생각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인종차별의 중요한 배경인 민족주의는 흑백 양편에서 제각기 발전하여 남아는 이제 색깔이 다른 민족주의의 대립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종차별 사상과 민족주의가 형성된 것에는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과 배경이 있지만, 본고에서 취하는 주요관심은 그것의 신학적 배경이다. 인종차별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 하나의 종교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⁴⁾ 우리가 다룰 이 상황은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다. 그래서 본고에서 논자는 우리의 주안점을 남아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과 민족주의에 대한 성경해석적 배경과 여러 기독교 종파의 신학과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위 Neo-Calvinism 또는 Neo-Kuyperism이라고 불리는 화란 개혁파계 신학사상에 두고자 한다. 그래서 James Baldwin의 말처럼 역시 남아의 교회들이 그러한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역할이 실제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본고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근년(近年)에 있어서의 Apartheid의 실제상황

1977년 12월 18일자, 우리나라의 주간신문 「주간조선(週間朝鮮)」의 ‘뉴스의 눈’란에는 “어떤 흑인의 죽음”이라는 제하에 남아의 인종차별에 관한 기사가 짙막하게 실렸다. 그것은 Steve Biko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의 사진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대개 이러했다. Biko는 남아공화국의 흑인각성운동에 열성을 기울인 약관 30세의 청년으로 경찰당국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복역중 옥사했다. 공화

3) Johannes Verkuyl, Break down the Walls(Grand Rapids: Eerdmans, 1973), pp.95-96.

4) J. Daane, op.cit., p.7.

국 정부는 'Biko가 7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죽었다'고 했지만, 그 발표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래서 남아의 무명청년이던 Biko는 일약 '남아의 킹 목사'로서 전세계에 알려졌고, 국제 여론은 또다시 남아의 인종차별정책을 주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John Voster 수상은 Biko의 죽음을 발표한지 8일 되는 9월 20일에 돌연 '11월 30일 총선거'를 발표했고, 10월 19일에는 흑인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작전에 착수했다. 흑인지도자 9인(UPI 보도) 혹은 16인(AFP)을 체포하고 흑인계 최대신문 'The World'의 판매를 금지하고, 백인 기독교단체, 흑인조직 등 18개 단체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安保理)는 UN 32년 역사상 최초로 대남아무기금수(對南阿武器禁輸)라는 제재 결의를 했고, 국제 여론은 Biko의 사인(死因)을 맹렬히 따지고 들었다. 이제 국제 여론에 굴복한 남아공화국의 정부 당국은 동년 11월 14일 사인사문법정(死因查問法廷)을 열었다. 이 법정에서 밝혀진 바대로는 Biko가 많은 고문 끝에 죽었다는 것이었다. 9월 24일 소웨토시(Johannesbary의 위성도시)에서는 Biko의 장례식에 참석차 몰려든 약 1천 명의 군상(群像)들과 기동경찰의 충돌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보도이다.⁵⁾ 이러한 기사는 근년의 인종차별에 대한 단적인 한 예에 불과하다. 이런 인종차별이 실제상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정치적 Apartheid를 살려볼 수 있다. 1950년에 남아 국민은 정교한 분류체계(Population Registration Act No.30)에 의해 인종별로 구분되었고, 1959년과 1962년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구분되어, 같은 해에 'Bantu족 자기발전 조장'에 대한 법이 제정됨으로, Bantu족은 중앙정치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다만 고문격으로 조금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끝내 복수인종 정당인 Edgar Brookes와 Alan Paton의 자유당(The Liberal Party)과, 흑인정치조직체로서 Albert Luthuli와 Matthews, Nelson Mandela 등이 이끄는 African

5) 『週聞朝鮮』, 1977. 12. 18일자, p.23.

National Congress, 또한 Robert Sobukwe가 대표인 Pan African Congress 등이 해체되었다.⁶⁾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Apartheid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Word and Deed” 그룹의 J. H. Coetzee 교수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⁷⁾ 이것은 백인은 전지역을 마음대로 장악하고 조정할 수 있으나 Bantu족들은 지역적으로 제한당해 있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곧 종족에 따라 열 곳의 영역만을 그들에게 할당하여 거기서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인데, Bantu족은 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할당된 땅은 고작 전 국토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침식되고, 생산이 불가능하며, 또 너무 많이 사용한 까닭에 황폐해진 땅인 것이다. 그리고 이 Bantu족의 지역들은 대부분 상호 인접해 있지 않고 격리되어 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 1979년까지 단지 Transkei와 Bophuthatswana만이 “독립지역(independence)”으로 승인이 났으며, 1979년 9월 13일에 최북단에 위치한 반투족인 Venda가 승인이 났던 것이다.⁸⁾

그리고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Apartheid가 나타나는데, 가령 우선 노동의 기회와 임금이 불균등하다. 그리고 반투족이 조합을 결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백인 지역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으며, 또 그들에게는 노동 파업은 절대 허용되지 않고 있다.⁹⁾ 그리고 교육에서도 그러한데, 이 교육적 Apartheid는 수상 Verwoerd와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M. C. de Wet Nel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그 제도에 따르면 백인들에게는 의무교육이 있고 공적인 교육비가 지불되지만, 흑인에게는 그런 게 없으며, 또 흑인들은 대학에 들어가기에 극히 어렵고, 그 수를 극히 제한하

6) J. Verkuyl. op. cit., pp.108-109.

7) J. H. Coetzee, The South African Concept of Homeland in the Context of Seperate Development” Word and Deed, 1970. 18.

8) John Grotpetter, “Changing South Africa”, Current History(a World Affair Monthly) 1980. March, Vol.78. No.455., p.120.

9) J. Verkuyl, op.cit., p.118.

고 있다.

그밖에 세금이다. 건축법, 교통, 화장실 사용, 엘리베이터 사용 등 대부분의 사회적인 여건에서도 Apartheid가 생생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Apartheid에 대해 St. Louis College의 정치학 교수인 John Grotpetter는 그것의 1979년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사대분(四大分)하여 큼직한 인종차별정책(Grand Apartheid), 소소한 인종차별정책(Petty Apartheid), 경제적 인종차별정책(economic Apartheid), 그리고 정치적 통제(Police Control)로 나누고 있다.¹⁰⁾

Vorster를 이어 1978년 10월에 수상에 오른 Pieter Botha는 79년 1월 보수주의자들로 꺾친 Transvaal National Party Congress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는 진부한 관행과 제한들을 제거하려고 해야 한다. 남아공화국은 감히 다른 종족들을 압제하는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또 그는 같은 달 Cape town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흑인 지도자들에게 보다 나은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전기에 대한 희망을 갖게끔 하였다. 이에 Kwazulu의 족장인 Gatsha Buthelezi는 Botha가 전 수상 B. J. Vorster의 이상론적 “Straitjacket”(광폭한 죄수에게 입히는 삼베로 만든 자켓을 뜻하는 말로 이것은 흑인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의 인종차별을 의미함)을 포기하는 어떤 새로운 “인종적” 어프로치를 택했다고 했다.¹¹⁾ Ciskei의 추장인 Lennox Sebe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흑인들에게 우정의 손을 펼치려는 지도자를 갖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우리 하나의

10) J. Grotpetter, op.cit., p.120.

11) Ibid., p.119.

이상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있다”

고 말했던 것이다.¹²⁾ 그러나 백인의 정권이 그렇게 인도주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Botha 정부에서도 곧장 드러났다. Botha는 결코 자기의 정책 변경을 통하여 백인들이 누려왔던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약화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¹³⁾ 그의 정책은 곧이어 반대파들에게 ‘화장용 변화(Cosmetic Changes)’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Botha 정권은 흑인을 고립시키기 위해 유색인종을 내각에 발탁했다. 그러나 1984년 9월에 반정부 폭동이 본격화 되자 정부는 1986년 6월에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에 항의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 봉쇄 정책에 따라 남아공화국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1990년에는 기후의 불순과 양모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1989년 8월 Botha 대통령이 사임하고 De Clerk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는 이전까지의 백인정권과는 매우 다른 가시적인 조치를 점차 취해갔다. 그는 우선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시스루 서기장을 비롯하여 중요한 정치범들을 석방했다. 또한 인종차별정책 관련법의 철폐를 흑인들에게 약속하며 흑인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무장투쟁을 중지했다. 그리고 인종차별정책에 항의해 경제 봉쇄 조치를 해오던 세계 각국은 영국을 시발로 하여 이를 해제했다.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흑인의 우상적 지도자인 Nelsen Mandela의 석방과 인종차별에 대한 제도적 철폐조치, 그리고 흑인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의 발효 등이다.

금년 9월 2일 남아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교외에서 민주남아공회의

12) Christian Science Monitor, Jan. 24. 1979., p.6.

13) John Grotpetter, op.cit., p.120.

(CODESA)가 '94년 4월 27일 다인종참여 자유총선 실시'를 공식 선언한 것은 흑인의 참정권 인정과 Apartheid 철폐, 그리고 평등화 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진 가장 가시적인 사건이었다. 이어서 9월 7일에 남아프리카의 흑백협상 대표들은 과도 정부격인 과도 행정위원회(TEC) 법안에 합의했다. 남아공화국 내 23개 정파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TEC는 내년 4월 다인종, 다당제 총선까지 De Clerk 백인정부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이양받아 총선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우선 TEC은 구체적인 선거 준비 작업과 함께 임시헌법 제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로써 수백 년에 걸친 백인 단독정치의 시대가 역사의 과거로 사라지게 되며 흑인이 국정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합의로 내년 4월 27일의 총선에서 흑인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고 최소한 흑백 공존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내년에 들어설 정부는 TEC이 만든 임시 헌법에 따른 과도정부로서 5년간의 '실습 기간'을 갖게 되고 99년에 또 총선이 있게 된다.

이번에 이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물론 많은 난관이 있었다. 다인종 대표의 협상과정에서 친나치 극우 백인단체인 Afrikaar 저항운동(AWB)과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는 백인 보수당(CP), 흑인 줄루족이 주축이 된 인카타 자유당(IFP) 등은 내년 총선 일정 확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들의 대외적 반대 사유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방식과 정치폭력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없이 선거 일정을 정한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혈충돌이 더욱 격화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백인들은 정권이 고스란히 흑인들에게 넘겨지는데 대한 불만이 있고, 흑인들은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들이 집권함으로써 당할지 모르는 기득권 상실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강한 제동을 통해 협상의 지연에 조급해진 흑인들이 '백인

독립국' 설립을 인정토록 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지방자치 정부제를 받아들일도록 해 향후 흑인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속셈이 들어 있다.

우파 백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독립국 후보지도 물색해 놓고 있는데 그 곳은 현재 백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농업기반이 갖추어진 Transvaal과 Orange 자치주이다.

하여튼 각 정파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싸움은 외형적으로는 온건하게 나타나지만 역시 De Clerk가 이끄는 국민당(NP)과 Mandela가 중심 인물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간에도 있다.

이번의 협상은 대다수의 정파가 참가했지만 백인 정부를 대표한 NP와 흑인 최대세력을 자랑하는 ANC가 주도했고, De Clerk와 Mandela의 지도력이 이번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이 양대 주역도 앞으로 이뤄질 정치제도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De Clerk는 느슨한 연방제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남아공의 다양한 인종과 정파를 감안할 때 단일 중앙정부를 구성하면 유혈충돌과 이로 인한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에 비해 Mandela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현재 10여 개로 분할되어 있는 흑인자치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국민통합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단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신(新)남아공화국의 그럴듯한 정치 구도로 Mandela 대통령 - De Clerk 총리 체제를 그려본다. Mandela의 지도력과 De Clerk의 행정경험이 합해지면 흑백 인종의 조화는 물론 국가의 발전에도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도 좀더 논의하겠지만 아직도 흑백간, 흑흑간의 분규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Mandela의 온유하고 이성적인 호소는 과격 흑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가히 신적인 존재

처럼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었고 또 지도력도 전보다 훨씬 약화되었다.

앞으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유혈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모든 것은 행정적, 제도적으로는 Apartheid가 철폐되어가지만, 여전히 오랜 세월동안 남겨진 마음의 상처와 어두운 과거들은 흑인들의 의식에서 가뻔히, 그리고 깡그리 지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Apartheid는 지나가버린 과거지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멀지 않은 미래까지는 따라갈 것이다.

II. Apartheid의 역사적 배경

과거 우리 한국처럼 신분의 차별은 같은 민족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인종차별은 대체로 원주민이 살던 지역에 타민족이 점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역사는 한결같이 침략자는 지배층이 되고 원주민은 피지배층이 됨을 보여준다. 인도의 사성제도도 사실은 이런 원인이 있으며 미국의 과거도 그러했고, 본고에서 살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재도 그러하다. 현재 남아공화국의 지배계급은 소위 Afrikaaner를 쓰는 아프리카 부족(Afrikaners)인데, 이들은 현재 남아공화국에 약 500만 명이 있다. 이들은 남아공화국을 최초로 침략한 네덜란드인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이주는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얀파리벡이 동양무역의 보급기지 건설을 위해 케이프 타운에 정착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이들은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스스로를 보어(Boers; 네덜란드어로 '농부'라는 의미)인이라 불렀다. 이들은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약탈했고 노예제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일백여 년이나 지속되었다. 18세기 후반 국제적인 해운통상국으로서 네덜란드를 이긴 대영제국은 인도무역의 중개지로서 케이프 타운을 차지하려고 했다. 1815년 영국은 마침내 이 곳을 장악했고 1843년에는

네팔도 점령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한 보어인들은 1830년대부터 대륙으로 이동했다. 보어인들은 그 당시 북으로부터 남하해오던 반투계 부족들과 싸우면서 트랜스발 공화국(1852년)과 오렌지 자유국(1854년)을 건설했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은 산업자본의 발달에 따라 광대한 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1867년 트랜스발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또 오렌지 강변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영국은 이 지역에서의 지배권 확립을 기도하여, 많은 영국인을 이 지방으로 옮겨 들어가게 하였다. 따라서 영국인과 보어인 사이에 마찰이 생겨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소위 보어전쟁(Boer War)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보어인의 패배로 두 공화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십 년이 지난 후 이들 지역이 합병돼 남아프리카 연방이 형성되었다. 남아연방의 지배 세력은 보어인으로 이들은 본국 네덜란드와의 인연이 단절된지 오래여서 스스로 아프리카 토착의 백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들은 1948년 이래 흑인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정책을 영국이 비판하자 이들은 1961년 5월 영연방을 탈퇴하고 국명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고대 회람에서 페르시아의 침입이 여러 Polis로 나뉘진 헬라 민족의 민족주의를 일으켰듯이 영국의 공격과 지배는 보어인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발흥시켰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로 과거에 헬라인(Ἕλληνοί)이 야만인(βάρβαροι)을 배격했듯이 이제 보어인은 원주민을 박해하고 인종차별정책을 쓰게 된 것이다.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따라 1959년에는 9개의 반투(Bantu: 남아프리카의 흑인) 지역이 설정되었다. 반투족은 부족에 따라 소사, 줄루, 츠와나, 바페디, 소토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광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칼러드라고 불리는 부류는 초기의 이민 백인과의 혼혈족인데 이들은 주로 케이프 프로방스에 거주한다. 주로 인도 출신인 아시아계는 19세기에 사탕수수 재식농업 노동자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며 주로 나탈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약 3천8백만 명에 달하는 남아공화국의 인종분포는 흑인이 75.2%, 백인 13.6%, 혼혈 8.6%, 아시아계 2.6%로 이루어져 있다. 1978년에 발족한 보타정권은 흑인을 고립시키기 위해 유색 인종을 내각에 발탁하고 의회에 참여시켰지만 국민의 70% 이상을 점하는 흑인들에게는 참정권을 배제시켰었다. 의회와 내각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위원회와 대통령 평의회도 백인이 과반수 이상, 유색 인종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수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백인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흑인 원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정책을 폈는데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소위 Bantustan이다. 이것은 반투족을 격리하고 인종 분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 들어서서 설정한 보호령으로 과거에 '원주민 지정지'라고 일컫던 영토를 일종의 '자치(自治)'를 인정하는 형태로 개칭한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반투스탄에 독립을 부여할 방침을 취했고, 76년에 그 제1호로 트란스케이가 독립했으나 국제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놀랍게도 급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80년대 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므로 서곡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89년 인종차별정책 신봉자인 Botha 대통령을 물리치고 권좌에 오른 De Clark 대통령은 인종차별정책의 철폐를 선언하며 그 이듬해 27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하던 Nelson Mandela를 석방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구등록법, 토지법, 집단거주지법 등 3대 악법을 폐지하고 흑인의 정치참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약속하면서 '남아공화국의 고르바초프'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경이로운 변화는 흑인의 참정권(參政權)이 인정된 것이었다. 지난 9월 2일 남아공 내 26개 정파 중 23개 정파가 합의하여 선언한 것에 따라 94년 4월 27일 다인종 참여 자유총선 실시가 이뤄지면 3백50년간 소수 백인 지배체제가 종식됨과 아울러 다수 흑인의 집권이

이뤄지는 ‘신남아공화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partheid의 완전 철폐가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정치 일정과 그것에 따른 Apartheid의 완전 철폐에는 몇 가지 잠정적인 변수가 있기는 하다. 우선 많은 백인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이 합의를 흑인들에 대한 ‘조건부 항복선언’으로 보기도 한다. 그들은 De Clark가 백인정권을 고스란히 흑인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극우 백인단체들은 ‘흑인 정권 하에 사느니 차라리 내전을 택하겠다’고 하며 협상팀을 위협해 왔고 협상 막판 다급해지자 민주화 협상장에 무장한 채 장갑차를 타고 난입해 ‘백인 독립국’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밖에 흑인 보수세력도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흑인 줄루족이 주축이 되고 망고스투 부텔레지가 이끌고 있는 인카타 자유당(IFP)과 몇몇 흑인 자치정부가 협상안을 반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같은 흑인이면서도 그동안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아프리카 민족회의(ANC)가 집권할 경우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과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번 다인종, 다정파 합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 쉽지 않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합의 발표 이후 흑백, 흑흑 간의 충돌로 1백20여 명이 숨지는 등 유혈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ANC와 IFP간의 흑흑 갈등은 치료 불능의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의 협상안이 결실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흑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이끌어 올리는 일보다 어려울지 모른다.

아직도 7백만 흑인은 ‘반델라 파크’라는 판자집에 살고 있으며 또 그들의 실업률은 40%에 달한다. 설령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단순노동직이나 싸구려 임금 업소 뿐이다.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불투명하고도 밝지 못한 전도(前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아공화국에 서광이 비친 듯하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의 문제는 인종차별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하여튼 이번에 인종차별 정책을 타파한 공로로 De Clark와 Mandela는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을 받고도 환한 웃음과 함께 공동수상하였다.

III. Apartheid의 정치사상적 배경

Apartheid의 실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체계 내지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배후에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형성된 정통적 배경과, 또 정치발전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추적해 보며, 여기서서는 The Afrikaner Brotherhood와 현 집권당인 민족당(National Party)의 형성과 그들이 취한 Apartheid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고찰해보겠다.

1. 아프리카 형제단(Afrikaner Brotherhood)

처음부터 민족당의 발흥에 강력한 배경이 된 아프리카 형제단(Brotherhood)은 제1차대전 직후인 1918년에 Johannesburg에서 조직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조직으로서 비교적 적으면서도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 그 구성원은 화란 개혁신교회(Dutch Reformed Church)의 목사들, 그리고 전문직, 사업직, 대학에 있는 이들로 약 2-3,000명에 달했다.¹⁴⁾ Verkuyl은 이 Brotherhood의 근저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 그것은 곧 기독교 민족적 동기와 비백인 영역에 대한 백인들의 후견권(guardianship)이다. 전자는 하나님

14) Pierre Van den Berg, South Africa: A Study in Conflic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104.

이 자신의 신적인 위임에 의하여 역사 내에서 지배적 위치에 두신 ‘서구 기독교 문화(Western-Christian Culture)’를 하나의 ‘분리된 아프리카 국가’에 구현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후견권이 암시하는 것은 백인들의 비백인 그룹에 “지역 발전”에 대한 권리를 길러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있어서 백인의 권력 독점과 인종 차별을 뜻하고 있다.¹⁵⁾ 그래서 이 Brotherhood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모임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것의 기초로 형성된 민족당 내에서도 Cape town의 온건적 요소를 점차 몰아내고 이러한 과격한 입장인 트랜스발과 오렌지 자유국가적 요소를 강하게 등장시켰다. 그것은 특별히 Malan의 후계자인 Strydom이 수상에 오른 1958년 이래로 더욱 그러했다. 이 형제단은 “12사도들(The Twelve Apostles)”이라고 불리는 행정위원회에 의해 이끌려지는데, 이 위원회는 오늘날 민족당의 비밀행정위원회 역할을 하기도 한다.¹⁶⁾

이 형제단의 반군사적 단체로 ‘Die Ossewabrandwag’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 수상인 John Vorster같은 이에 의해 이끌려진 그룹으로 제2차대전 시에는 대 나치 투쟁을 하고 있는 Smuts 군대에 대해 사보타지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은 남아가 연합국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중립국으로 남느냐는 갈림길에 있을 때 Nazi를 유리하게 하는 제3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Ossewabrandwag이 취한 이데올로기의 표본은 1944년에 나온 한 문서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J. A. H. Van der Walt에 의해 쓰여졌고, Ossewabrandwag의 문화정보국(Cultural and Information Service)에 의해 간행되었다. 거기에는 Ossewabrandwag의 총회에서 채택된 그것의 정치적 신조인 기본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의 특성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다 거부하고 이른바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를 모방하는 것이었다.

15) J. Verkuyl. op.cit., p.99.

16) Pierre Van den Berg. op.cit., p.104.

이러한 신조들은 형제단이나 민족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적으로 지지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남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¹⁷⁾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 형제단의 이념에 대해 젊은이들은 많은 회의를 갖고 있으며, 또 형제단 그 자체 내의 두 동기(動機) 간에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남아인들은 기독교와 서구 문화는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총독 Hertzog의 아들인 Albert Hertzog은 이러한 위기 중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부흥민족당(Restored National Party)을 만들었으나, 이 당은 1970년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였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런 분열과 회의 가운데서도 Afrikaner Brotherhood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꿈과 희망은 아직도 남아의 리더쉽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2. 민족당(National Party)의 이데올로기

민족당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온건파가 실권을 잡아 영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평정과 균형을 이룩했다. 그러나 형제단의 기반으로 제2차대전 기간 중 힘을 기르고, 끝내 1948년에 정권을 쥔 민족당은 이러한 평정을 깨뜨리기 시작했다.¹⁸⁾

민족당이 권좌에 오르기 10년 전인 1938년 4월의 선거일 밤에 당의 지도자인 Malan은 Apartheid에 대한 정당의 강령을 읽었는데, 그것은 결국 자연인들(naturals - 당시 흑인 아프리카에 대해 사용한 말, 공식적으로는 'Bantus'라 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¹⁹⁾ 3개 향으로 되어 있는 그 Apartheid 정강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다방면에서의 분리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17) J. Verkuyl, op.cit., pp.100-102.

18) Pierre Van den Berg, op.cit., p.37.

19) J. Verkuyl, op.cit., p.103.

“우리 당은 모든 비백인(非白人)들에 대해 인종 분리의 원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백인의 유익은 물론 그들 비백인의 유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고자 함이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법 제정을 하기를 원한다: 백인과 비백인간의 거주 지역의 분리, 노동조합의 분리, 노동 및 고용 장소의 분리 등이다.”

이러한 강령은 역시 민족당이 인종 차별제도를 도입하여 백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비백인들은 권리를 제한시키려는 자세를 명백히 담고 있다. 민족당이 이런 정강(政綱)을 구체적인 정치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정권을 쥔 1948년이였다. 이것 외에 이데올로기적인 청사진이 전적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은 Tomlinson Report가 나타난 이후였다. 이 Report는 Tomlinson위원회의 작업이었는데, 이 위원회는 1950년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농업전문가인 T. L. Tomlinson을 위원장으로 하여 Apartheid 이데올로기의 근거 위에서 강화된 인종 분리정책의 청사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위원회였다. 그 Report는 총 18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954년에 작성되어 모든 종족에 의해 받아들여졌다.²⁰⁾

그리고 인종 분리적 개발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탁월했던 정치가는 민족당의 Hendrik Verwoerd였다.²¹⁾

W. A. Landman이 편집한 「A plea for Understanding」에는 Verwoerd의 중요한 연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연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Verwoerd는 역사를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여, 300년 전에 백인이 South Africa로 오게 된 것은 Africa의 서구문명화를 위한 신적인 소명이 있으며, 따라서

20) J. Verkuyl, op.cit., pp.103-104.

21) A. N. Pelser(ed) Verwoerd Speaks(Johannesburg: Persker, 1966), p.21.

백인의 권력 독점은 당연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Wilson과 Thompson은 그들의 「Oxford History of South Africa」 Vol.1에서 이러한 역사적 운명관이 신화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공격했다. 둘째는 Verwoerd가 인종 분리 개발에 대한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복음과 같은 감언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선포하기를 “목적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만 한다. 인종 분리 개발정책은 각 그룹이 자기 영토, 자기 언어, 자기 법률을 가짐으로서만이 유지될 수 있는 행복과 안정, 그리고 견고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백인에게서나 흑인에게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라고 했다.

Verwoerd는 거듭 백인 감독 하의 분리 개발에 대한 그의 이상(理想)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고 있다.²²⁾ 이러한 민족당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은 파시스트적 국가나 라틴아메리카의 우익 독재정권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19세기의 식민지주의식의 간섭주의(Paternalism)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Van den Berg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인용해 보자. 원문으로 게재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게 보일 것 같다.

“The Ideology of Afrikanerdom and of the Nationalist Party is based on rugged frontier individualism, distrust of authority, and a sense of self-righteousness as God’s Chosen People. The leader is fashioned after the image of the Biblical patriarch, and is more a traditional than a charismatic figure. The objective is not the creation of a new order, but the return to a romanticized pre-industrial past when the

22) J. Verkuyl, op.cit., p.105.

Afrikaners will again rule without the interference from British Capitalism overseas meddlers, and "Cheeky Kaffirs". The ideal concept of government is one of "Herrenvolk egalitarianism" with only the minimum of contral authority necessary to keep the Africans and the other non-Whites perpetually in the position helots."²³⁾

이것은 정당하고 예리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여튼 인종차별론의 이데올로기를 수립하는데 앞장섰던 민족당의 주요 멤버들은 D. F. Malan, H. Vorwoerd, N. Diederichs, P. J. Meyer, Geoff Cronje 등이었다.²⁴⁾

IV. Apartheid와 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기저와 논의

인종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 하나의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⁵⁾ 남아공화국이 Apartheid를 취할 때에 일부 기독교 종파들과 신학자들은 거기에 성경적 배경 내지 신학적 근거를 부여했다. 물론 James Daane이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인종주의는 근본적인 동기는 어찌면 매우 무의식적인 것인지도 모른다.²⁶⁾ 근년에 Cape Town의 감리교 목사인 Charles Villa-Vicencio는 "South Africa's Theologized Nationalism"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²⁷⁾ W. A. de Klerk도 이런 신학화된 Apartheid와 민족주의를 지적했다. 그

23) P. Van den Berg, op.cit., pp.79-80.

24) John W. de Gruchy, *The Struggle in South Africa*(Grand Rapids: Eerdmans, 1979), p.34.

25) James Daane, op.cit., p.7.

26) Ibid., p.8.

27) Charles Villa-Vicencio "South Africa's Theologized Nationalism" *The Ecumenical Review* vol.29, No.4, 1977. Oct.

는 한 책에서

“Afrikaner Politics was slowly but fatally being theologized. There was a growing urge to set the South African World right, once and for all, to reconstruct it and redeem it in terms of a newly - defined Afrikaner ‘lewes-en wereldbeskouing’ - a World view. The National Party was itself becoming, if not a church, then a party imbued with religion - a secular religion - at its very roots”²⁸⁾

라고 하므로 역시 인종차별주의가 신학적 내지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1. 칼빈주의와 민족주의

‘기독교적-민족적’(christian-national)이란 개념은 매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남아공화국 칼빈주의의 생활관을 요약하고 있는 말이다.²⁹⁾ 이것은 곧 남아의 백인계가 표방하는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아에 있는 민족당, F.A.K. 그리고 많은 문화적 단체들이 이 원리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것에 맞서 근년에는 “Bantus nationalism”(흑인의 민족주의)으로 강하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또한 신학적 작업을 이루어 이른바 ‘흑인신학(Black Theology)’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남아의 인종 문제는 이제 민족주의 간의 대결로 그 양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실상 20세기에 있어 국제적 갈등의

28) W. A. de Klerk, Paritans in Africa(London, 1975), p.119.

29) B. J. Van der Walt, Horizon(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1978), p.242.

30) Ibid.

주요한 한 원인은 이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³¹⁾ 특히 흑인 아프리카인의 민족주의는 대체로 서구문화를 거부하고,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적 동질성을 찾고 유지하려고 하면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나아가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과거 자이레, 차드, 가이아나 등의 국가에서 봐 왔던 것이다.³²⁾ 그러나 우리가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과거 서구의 제국주의적이고도 식민지주의적인 침략과 압제를 볼 때 이런 투쟁적 민족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는 기실 자기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요, 또 자유와 해방을 위한 민족 자각의 정신이요 운동으로서 아프리카 제국뿐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의 우리 조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민족주의 운동 대신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정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배타적이면서 침략적인 민족주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는 병든 민족주의로서 극단적인 자기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 타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³³⁾

서구의 제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감행하면서 기독교 선교를 앞세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제국의 방어적인 민족주의는 때로 기독교 선교를 서구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보고 기독교 사상을 그런 이념의 파괴자로 간주하며 그것을 배격하곤 했던 것이다.

사실 서구 제국은 제국주의적 야욕의 성취를 위해 기독교 사상을 반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31) David. M. Gitam, "Church and Nationhood in a Changing World" Church and Nationhood, p.23.

32) P. J. Johnstone, Operation World(Bromley: STL publications 1979), p.157.

33) cf. David. M. Gitari, op.cit.

은 하나님 안에서 만인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하고도 평등한 존재임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 남아공화국의 기독교적 백인들은 '기독교적-민족적'이란 개념을 쓰면서 자신들의 배타적이고 공격적 민족주의의 이념을 성경의 가르침과 Calvin의 신학으로 잘못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물론 Calvin도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말이다.

남아공화국의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Nationalism)'는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이며, 목적론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N. Diedericks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우선 민족주의야말로 인간의 영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그 단독으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 인간이 참으로 인간적이 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고립성을 버리고 민족이라는 공동체와 문화에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³⁴⁾ 그는 또 우리가 민족이라고 불리는 지존의 내적인 통일체를 고양하고, 고상하게 하고, 부요하게 함이 없이는 인류는 그의 인간 실존의 최절정에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매우 전체적이고 내적인 인간공동체인 민족에서만 인간은 그 자신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민족은 개인 생활의 성취인 것이다.³⁵⁾ 이렇게 Diedericks는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일종의 구원론적 관점에서 설파했다. 아울러 그는 또 그것의 목적론적인 측면도 제기하고 있다. Diedericks는 하나님은 개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뿐 아니라, 창조의 섭리적 계획에서 각 민족에 대해서도 특별한 소명을 위탁하셨다고 본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봉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다. ³⁶⁾ 이러한 사상에 대해 H. G. Stoker는 그런 신학적 해석을 통한 민

34) N. Diedericks, *Nasionalisme as Lewensbeskouing en Sy Verhouding tot Internasionisme*(Copec Town: Nasionale pers, 1935), p.19. Charles Villa-Vicencio에서 중인, p.376.

35) Ibid., pp.17-18.

36) Ibid., pp.43, 60.

족주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비판했지만, 다른 이들은, 예컨대 Treurnicht는 Diedericks에 동조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인류를 구별되지 않는 집단으로 남지 않게 하시려고 ‘민족화(nationalizations)’ 하셨다. 그리고 그의 섭리 하에 민족적 결속이나 문화적 공동체가 확립된다. 또 민족을 기독교화 하는 것은 그 민족적 존립과 성격을 제거시키는게 아니라, 다만 그 민족을 개종시키고, 또 죄성으로부터 정결케 해 주는 것을 뜻한다.”³⁷⁾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민족에 어떤 목적을 주며, 따라서 민족을 견고히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목적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민족 내에서의 그의 형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³⁸⁾

이런 Treurnicht의 주장은 외형상으로는 건전한 사상으로 보이지만, 그런 주장이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개진에 하나의 도구적 발언으로 사용되므로 우리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게 된다. 특히 그의 ‘기독교화’라는 말은 그 내면을 고찰하면 문제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Christian-National’한 원리와 주장들은 과연 성경적이고 또 칼빈주의적인가? 이 질문은 Potchefstroom대학의 교수인 B. J. Van der Walt의 한 논문 제목에도 나타나는데,³⁹⁾ 그의 논지 역시 ‘기독교적 민족주의의 사상이 과연 프로테스탄트의 유물인가 하는 것이다. Van der Walt는 이 ‘기독교적-민족적’ 개념의 원리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는데, 우선 이교(異敎)의 기원을 가진 성속의 개념을 살피고, 그리고 중세에 있어서의 고대 성속 이론론을 변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연-초자연의 도식을 논해 보고, 나아가 그 두 영역 간에는 보완적인 입장이 있지만 어떤 본래적 긴장이 상호 간에 존재한

37) A. P. Treurnicht, Credo van in Afrikaner(Cape Town: Tafelberg Uitgewers Bepark, 1975), p.9.

38) C. Villa-Vicencio, op.cit., p.377.

39) 원제목은 “Is die Christeligm-Nasionale beginsel Calvinisties?”로 Fokus4(4) - 1976. 12일자, pp.397-410에 실렸던 것이다.

다고 했다. 이러한 사상이 Luther의 두 왕국 교리는 물론, Calvin의 지상의 것과 하늘의 것, 시민법과 영적인 법,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러나 Van der Walt에 의하면 이 이분법적 개념은 수 세기를 통하여 기독교를 절름발이로 만들었고,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개혁하고, 쇄신하고, 자유케 하는 식의 활동으로부터 기독교를 막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Christian-National'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두 영역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들 간에는 은총이 자연을 지배하듯이 '기독교적'인 것이 '민족적(national)'인 것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지시하고, 조명한다. Van der Walt는 '기독교적'(Christian)이란 개념은 반민족적(anti-national)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렇다고 민족주의적(nationalistic)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남아의 경우에서처럼 필요에 따라 그 사고방식이 그저 민족적(national)인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민족적'인 개념은 중세의 그릇된 성숙 개념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 간에는 균형이 유지되기 힘들고 어느 하나에 강조점이 주어지기 쉽다.⁴⁰⁾ 실은 Van der Walt가 잘 지적한 바대로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Nationalism)'이란, 한편으로는 '반민족적 기독교(an anti-national christianity)'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기독교적 민족성(a unchristian nationality)'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해될 법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이란 개념이 유독 '민족적(national)'이란 개념과 결합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은 서로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민족'이란 개념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며, 또 그의 생활 전체가 기독교적이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와 인종 차별을 정당화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신학적 배경으로는 소위 날조된 언약사상을 들 수 있다. 일부 화란 제통의 개혁

40) Van der Walt, op.cit., p.244-249.

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상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예들은 흑인 원주민이나 아시아계와는 달리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신분과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비성경적인 사상임은 물론 반성경적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것은 논자에게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나 히틀러의 아리안(Arian)족 우월사상과 유사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성경의 언약사상이나 칼빈의 언약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정함 받은 자에 대한 구원의 언약인데 비해 이것은 자연적이고 혈통적인 언약 사상을 말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면 이 인종차별의 신학은 인간의 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런 신학을 내세우는 이들은 성경을 이용 하는게 아니라 오용(誤用)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짓 교사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 남아공화국의 '기독교적 민족주의'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또 진정한 '기독교적'인 것도, 그리고 진정한 '민족적'인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그것은 그것이 신학적 배경이라고 일컫는 '칼빈주의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물론 칼빈주의는 그것이 전해진 도처에서 강조점이 다르고 색깔이 차이가 있어 지역마다 특색있게 뿌리를 내리지 만(예컨대 칼빈주의적 인생관만 보더라도 어떤 이는 문화적 사명 완수의 삶을 사는 것이 '칼빈주의적'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그네로서의 선교적 삶만 사는 것에 같은 개념 규정을 한다), 남아에 있어서의 소위 '기독교 민족주의'의 이념을 원리적으로 칼빈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칼빈주의는 성경적 입장에 견고히 서 있고,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인종이나 신분 또는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또 기독교를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거나 야합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칼빈주의를 그 실행의 전(全) 형태에서 부드럽게(tone down)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⁴¹⁾ 따라서

41) Ibid., pp.250-252.

‘Christian-Nationalism’은 칼빈주의적 원리가 아니라, ‘반(反)칼빈주의’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2. Apartheid에 대한 성경해석적 제 고려

Diedericks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구원론적, 목적론적 민족주의는 Apartheid로 이끌어졌으며, 또 그것은 남아 내의 화란 개혁신교회의 신학 내에서도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화란 개혁신교회(Dutch Reformed Church)에서 발간한 ‘Human Relations and South African Scene in the Fight of Scriptures」⁴²⁾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남아의 사회적, 정치적 제반사(諸般事)에서 교회의 역할을 연구한 것으로 총회에서 임명받은 위원회의 연구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Apartheid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제공하려 했는데, 그것은 주로 창세기 10-11장에 나온 인류의 분산 문제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 “성경의 개별적인 text들은 그것들의 context 내에서, 그리고 계시역사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 총회가 취한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였다.⁴³⁾ 그것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국가의 동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성경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데서 다소 역지를 부린 것 같이 보인다. Brian Johnson은 이 보고서의 배후에 감춰진 인종 차별의 모티브를 간파하고 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유대교는 인종차별 사상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라고 보는 데에 동의한다.⁴⁴⁾ 그러나 그 중의 흑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이나 함(Ham)에 대한 저주의 문구 등에서 성경이 Apartheid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는 수 세기 동안 노예제도를 용

42) Cape town & Tretoria: Dutch Reformed Church Publishers, 1975.

43) C. Villa-Vicencio, op.cit., p.377.

44) James Daane, op.cit., p.51.

호하고, 흑인들을 수없이 침해하는데 이용 내지 오용되어 온 텍스트이다. 특히 18, 9세기에 화란과 남아와 마찬가지로 영미(英美)에서도 노예제도와 노예 거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종의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창세기 9장을 사용하는 많은 신학적 저작물들이 나왔다. 흑인 합의 후손들로 언급되어 그 인종은 유전적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하등의 계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류의 논조로 극단적으로 씌어진 저작이 Joseph Priest의 'A Bible Defense of Slavery'이다.⁴⁵⁾ 그러나 당시에도 이러한 함 신학(Ham-theology)의 그릇된 주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Boston의 판사였던 Samuel Sewall이 있는데, 그는 'The Selling Joseph'이라는 저작을 1700년에 내었다. 또한 Benjamin Franklin과 John Wesley, 휴그노파의 Anthony Benezet, 웨이커 교도인 John Woolman 등이 당시의 노예제도를 성경적 관점에서 신랄히 비판하고 거기에 항거했던 것이다. 창세기 텍스트에 대한 날조적인 해석은 남아공화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Ben Marais와 S. du Toit같은 이들은 이러한 거짓된 신학에 대해 철저한 불신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그릇된 성경해석의 내용을 배경하면서 Verkuyl은 다음과 같이 이 구절들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있다.

i. 창세기 9장의 기자가 가나안족에 대한 저주(咒詛)를 말할 때, 가나안과 더불어 다른 함족을 포함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ii. 성경상의 함족과 어떤 특수한 인종(Negroids)을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한 것은 전혀 어떤 인종적 특징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둘째 천 년에 있어서의 정치적, 지리적 상황을 가리킨다. 곧 가나안족은 바로에게 예속되어

45) cf. J. Verkuyl., p.31.

있었고, 이런 이유로 그것은 함족 중에 셈하여졌다.

iii. 생태학적으로나 어원적으로 볼 때에 가나안족은 셈족에 속한다.

iv. 함족계(Hamitic)란 용어는 현대 인류학에서 어떤 개별적 인종을 지시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언어그룹에 대해서만 사용될 뿐이다. J. D. Douglas가 편집한 'The New Bible Dictionary'(Grand Rapids, 1962)에는 "Ham"란에 'There is no Hamitic race(함족은 없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다.

v. 역사적으로 볼 때에 원인과 결과는 창세기 9장에 있는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가나안족은 함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은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받았고, 또 다른 종족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용서와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⁴⁶⁾ 이러한 Verkuyl의 논지는 세대주의적 시각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온건하고 유익한 관점을 던져준다.

또 성경은 모든 종족과 인종들에게 대해 하나님에게 대한 원죄의 연대책임을 얘기하는데, Verkuyl은 이것에서도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낸다. 곧 첫째는 모든 인종과 종족 그룹은 아담이 지은 원죄에 함께 관계한다. 둘째, 우월한 인종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민족이나 인종도 그 자체를 우월한 존재로, 그리고 다른 인종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셋째, 각 그룹이 다른 그룹들을 희생물로 만들어 자신들은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는 그릇된 것이며 교만의 행위이고, 또 그 자신의 죄악을 증가시킬 뿐이다. 넷째, 모든 사람, 모든 그룹, 모든 민족과 인종은 세계의 공동적 죄책을 각기 분담하고 있음을

46) Ibid., pp.34-35.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⁴⁷⁾

또 흑자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출생하게 하신 사실을 가지고 이 Apartheid를 지지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이 민족들을 구분한 유일한 구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여타 민족간의 이런 구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왜곡되었을지라도 인종 차별주의나 인종 중심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구분은 하나님의 세계적 구속 계획 내에 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이런 구속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만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런 구분이 철폐되었음을 뜻한다.⁴⁸⁾ 사실 인종차별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세속적 해석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하신 인간의 동등적 존엄성에 대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침해하는 것이다.⁴⁹⁾ 칼빈주의의 선택론은 인간에게 주도권이나 책임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이 인간적 이유, 즉 피부색이나 민족적 기원에서 행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인 H. Bavinck는 인간류의 단일성을 매우 강조했다. 그는

“그것은 종교와 윤리의 기초이다. 인류 가족의 유대성, 그리스도 안에서 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성, 교회의 보편성, 사랑의 법칙 - 이 모든 것은 인류의 통일성에 뿌리박혀 있다.”

라고 했다. 참으로 인류의 통일성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며, 또 현대 인종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의 궁극적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

47) Ibid., p.41.

48) cf. Ibid., p.42.

49) James Daane, op.cit., p.7.

에서만 가능하다. Daane은 이렇게 말한다.

“인종 차별주의의 해결은 모든 인종과 민족이 자기들의 통일성을 발견하고, 서로가 온전히 용납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인간 거부에 대한 해답이다.(God’s election of man is the answer to man’s rejection of man - which is the essence of racism).⁵⁰⁾

3. Abraham Kuyper와 Neo-Calvinism의 영향

남아의 ‘기독교적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이들은 대개 그것을 Abraham Kuyper에게까지 소급시키며, 또 소위 신칼빈주의(Neo-Calvinism)의 영향으로 돌리는데 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그것이 남아와 갖는 관련성을 역사적으로 논구해 보고, 또 그 사상 자체와 또 그것의 변모된 모습을 고찰해 보겠다.

화란의 이주민이 처음으로 남아에 도착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652년 경이었고, 화란개혁파교회(The Dutch Reformed Church; 이하에서는 약칭 ‘DRC’로 표기함)가 흑인 ‘노예’들에게 선교하기 시작한 것은 1658년이었다.⁵¹⁾ 그 후 DRC는 세력을 확장하여 1824년에는 화란 교회로부터 자율권을 얻어 Cape총회를 조직했으며, 또 1859년에 이르러서는 Stellenbosch에 신학교도 세워 신학교육도 자체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DRC에 있어서 다른 또 하나의 결정적인 발전 요인이 생겼는데 그것은 1820년 경 이래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Scottish Presbyterian) 목사들이 대거 이거해온 사건이었다. 이것은 당시 남아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이 화란의 성직자

50) Ibid., p.8.

51) Stephan Neil & G. H. Anderson & John Goodwin, Concise Dictiona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p.560.

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DRC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이다. 이 선교사들 가운데 팔목할 만한 한 사람은 Andrew Murray 목사인데, 그는 화란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1822년에 Cape에 도착했다. 그의 아들 Andrew Murray가 더 유명한데, 그는 그의 형 John Murray와 함께 교육을 받으러 스코틀랜드와 화란에 갔으며, 또 여섯 번이나 DRC총회의 의장이 되었다. 형 John과 함께 Andrew Murray는 새로운 복음전도적 정열을 교회에 불어넣었고, 화란개혁파 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발전시켜 갔다. 이들 형제는 1843년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분리시킨 교회와 국가간의 분쟁을 체험했고, 또 화란교회의 합리주의적 경향도 접하게 되었다. 이들의 복음주의적 경건이 논리적으로 정연한 칼빈주의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도 DRC는 이들을 처음에는 그다지 문제시 삼지 않았다.⁵²⁾ 그러나 Murray 형제의 영향은 화란의 소위 '정통 칼빈주의자'들에게 점차 거북스런 것이 되었다. 또 이 두 입장은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공동의 적으로 대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이즈음 화란에서는 합리주의적 신학이 화란 교회를 여럿으로 분할했는데, 그것은 Groen van Prinsterer의 주도 하에 'the Seperated Christian Reformed Church'가 세워진 1834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Van Prinsterer는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에서는 물론 국가에 있어서도 결국 무신론과 혁명으로 귀착되고 만다며 그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 민족주의의 기치 하에, "고립 속에 우리의 힘이 있다"는 구호와 더불어 Van Prinsterer는 강한 정치적, 교회적 전쟁을 전개했다.⁵³⁾ Van Prinsterer가 이 때 내세운 신학의 입장은 엄정한 칼빈주의 사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전에 자유주

52) John W. de Gruchy, The church Struggle in South Africa(Grand Rapids: Eerdmans, 1979), p.5.

53) cf. Guiliamume Groen van Prinsterer, Unbelief and Revolution trans and ed. Harry van Dyke with Donald Morton(Amsterdam, 1975).

의의 확대를 제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활약은 Abraham Kuyper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Kuyper는 자신의 칼빈주의적 과제들을 성공리에 달성하였던 것이다. 화란교회의 혼란은 1869년 「The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의 형성으로 안정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교단에 Kuyper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뛰어난 정치가이며 신학자인 그는 Dort공의회의 칼빈주의를 참신하게 표명했으며, 그것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철학과 삶의 양식으로 보는 Van Prinsterer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는 이른바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이념을 펼쳐가기 시작했다. 나아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하게 부르짖은 Kuyper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의해 존재하고, 따라서 지상의 각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자체의 일들에 대한 독특한 주권을 가진다고 했다.⁵⁴⁾ 이것이 이른바 그의 ‘영역주권(Sphere-sovereignty)’ 이론인데, 그는 이것을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고유영역에서의 주권)”으로 표현했다. 1898년 Princeton 대학의 스톤강좌(Stone Lectures)에서 행한 칼빈주의에 관한 강연에서 그는 이것을 “개별적인 사회영역에서의 주권(Sovereignty in the individual Social Spheres)”, 혹은 “그 자체의 고유한 영역에서의 주권(Sovereignty in one’s own sphere)”, 혹은 “개별영역에서의 주권(Severeignty in the individual)” 등으로 표현하였다.⁵⁵⁾ 이 영역주권의 원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사상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권자이시다. 주권자인 그는 피조세계의 영역들을 정해 주셨고, 각 영역에는 다른 것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이다.

Veenhof는 Kuyper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54) de Gruchy, op.cit., p.6.

55) A. Kuyper, Lectures on Calvinism(칼빈주의), 박영남 역, 서울, 1971, cf. William Young, Towards a Reformed Philosophy(Grand Rapids, 1953).

“이렇게 삶의 영역은 창조법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주어진 ‘고유의 영역주권’을 가진다. 그들은 이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차위(次位)에 놓여진다. 그리고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서 유익만 취하거나 배척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서로 차위에 놓여지는 것 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다.”⁵⁶⁾

라고 했다. Veenhof는 Kuyper가 생활영역과 사회조직에 이 원리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약간 이런 온전한 이론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는지 물음을 제기한다. 하여튼 Kuyper가 이 영역 주권에 말한 일반은총은 구원받는 특별 은총과 다른 성격과 대상의 은총으로 창조의 구조들 속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 주권과 일반은총론이 소위 기독교 민족주의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⁵⁷⁾ Kuyper의 이런 신학사상은 그가 세운 화란 자유대학에서 가르쳐졌음은 물론, 남아의 Cape로까지 뻗쳐 거기서도 활발히 보급되었다. 그의 사상을 남아에서 가장 충실히 받아서 발전시킨 이 가운데는 S. J. du Toit가 있는데, 그는 남아공화국의 화란계 민족주의의 조종격이었다. 이 운동은 복음주의적 경건주의를 대신하였을 뿐 아니라, 후에 Afrikaner(남아의 화란계)의 민족주의적 정책의 모퉁이들이 된 기독교 민족주의의 교육의 토대를 놓았다. Murray의 경건주의와 Kuyper의 신칼빈주의를 볼 때 전자는 성격상 개인적(personal)이고, 후자는 매우 사회, 정치적이었기에 둘은 우선에 관심사나 방향에 있어 일치나 통합을 이룰 수 없었다. Kuyper의 사상은 흔히 Neo-Calvinism이라 칭하는데, 이것은 그다지 문제성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Kuyper가 Calvinism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통적인 Calvinism의 어느 한 면을 매우 강조하여, 그것으로 독특한 하나의 체

56) C. Veenhof, In Kuyper's lijn, pp.50, 51. W. Young, op.cit., p.67에서 재인용

57) de Gruchy, op.cit., p.6.

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여튼 같은 계열의 교회 내에 이렇게 조화되지 않는 두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S. J. du Toit가 DRC를 떠나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개혁파 교회(Gereformeerde Kerk)("the Doppe Kerk")가 대이주(the Great Trek) 후인 1859년에 Transvaal의 Potchefstroom에 세워졌을 때, 그것은 이 Neo-Calvinism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du Toit의 추종자들은 DRC로부터 이 새 교단으로 옮겨게 되었다. 이 교단은 19세기에는 DRC보다는 훨씬 더 엄격히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교단으로 알려졌다.⁵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DRC의 신학과 실천은 John Calvin의 가르침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Cape에 있던 본래의 화란 칼빈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침해당했고, 또 다음으로는 Murray의 복음주의(Evangelicalism)에 의해 변형되었다. 또한 그것은 역시 Abraham Kuyper의 Neo-Calvinism의 영향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했다.⁵⁹⁾ 비록 Kuyper의 신학이 Transvaal에 있는 'Gereformeerde Kerk'에 지배적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Neo-Calvinism은 DRC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창조에 뿌리를 내린 Kuyper의 영역주권론은 독일 선교사들에 의해 설명된 Luther의 "창조질서론"과 잘 조화되어 DRC정책에서 구현되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함께 남아의 사회에 팔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후에 DRC가 인종분리발전에 관한 민족주의자의 정책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된다고 지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이러한 정책에 종교적 근거를 제공한 신학적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네바의 개혁자들에 의해 설명된 신학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사상이었다.⁶⁰⁾ 그리고 사실 순수한

58) Ibid., p.7.

59) cf. H. G. Stoker and F. J. M. Potgieter, Koers in die Krisis(Stellenbosch, 1935).

60) du. Gruchy, op.cit., p.10.

Abraham Kuyper의 신학도 아니며, 또 Kuyper이론의 한 면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변질시켜 이용했을 뿐이다. 남아공화국에서 이렇게 부각된 칼빈주의라는 이름 하의 그릇된 민족주의 사상은 칼빈의 인간관은 물론 그의 국가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Calvin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 앞서 계시며, 또한 만민 위에 계신다. 그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만 하나님 안에서만이다.”⁶¹⁾ 이 말은 말하자면 주권자가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식으로 인간을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고도 평등하게 지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다스리거나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Charles Villa-Vicencio는 남아 DRC의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Neo-Kuyperianism이라 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⁶²⁾ V. Kuyper의 정치적 신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칼빈주의적 공리(公理)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 i.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 ii. 지상의 모든 주권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만 발생한다.
- iii.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 이상으로 그의 동료들 다스릴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⁶³⁾ 이러한 Kuyper의 정치사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르침을 볼 수 있다. 우선은 개인과 여러 자치영역들의 주권이나 권리들은 소중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Kuyper가 말하고자 하는 최상의 정부란 개

61)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IV. XX, 32. (Vol.2, p.1520).

62) C. Villa-Vicencio, *op.cit.*, p.374.

63) A. Kuyper, *칼빈주의*(박영남 역)(서울: 세종문화사, 1971).

별 영역들과 전체로서의 백성의 내적인 삶의 법칙이 충분히 표명되고 발전되도록 허락하는 정부인 것이다.⁶⁴⁾ 이래서 남아의 Kuypers계 철학자며 현대의 주요한 기독교 철학자 중 일인인 H. G. Stoker는

“정부에 대해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그 자체의 영역 내에서 독립성과 주권을 확실케 하는 것이 족하다”⁶⁵⁾

고 했다. 그것은 즉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들의 유기적이고 내적인 삶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 했다.

본래 남아의 민족주의는 애초부터 민족을 신격화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다만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도구로서 이제 민족의 이런 신적 도구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해 갔던 것이다. 그래서 Andrew Murray는 “죄의 목소리, 걱정 of 목소리, 당파심의 목소리, 그리고 그룹 유익의 목소리가 복음의 목소리를 제압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으며, Andre Hugo도 “그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한지 반세기가 지난 후 오늘날 기독교 민족주의는 우리를 주변의 다른 길 대신에 Afrikaner nationalism의 위협적인 실제 앞에 세우고 있다”고 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실정을 비판하거나 그것에 항거하는 이들은 “자유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 또는 “반정부주의자”로 지목되어 지는 것이다. 그래서 Hugo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불신은 복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정책, 곧 환원하면 Apartheid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되므로 교회는(히틀러 시대의) 독일 기독교회(제국교회)와 같이 국가의 이상론에 하나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구조로 강등되어 버려졌다.”⁶⁶⁾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의 내재성 속에 초월

64) du. Gruchy, op.cit., p.374.

65) H. G. Stoker, Die Stryd om die Ordes, Potchefstroom, Calvyn Jubileum Boekefonds, 1941, p.148, Charles Villa-Vicencio. op.cit., p.375.에서 재인용.

66) A. M. Hugo, “Christelik-Nasional in suid Afrika Vandag” Pro Veritatis,

성을 상실해 버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 죄, 종족, 그리고 민족주의가 서로 범벅이 되어 동화되어 버린 것에 있다.

V. Apartheid에 대한 제 기독교 단체의 반응

우리는 앞서 남아의 Apartheid와 민족주의의 실제상황과 정치적, 신학적 배경을 논구해 보았다. 특히 Abraham Kuyper의 Neo-Calvinism을 근간으로 한 Neo-Kuyperianism이 DRC를 통하여 이러한 남아의 정책에 신학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음을 살폈다. 그러나 언급한 바대로 이러한 기독교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사상은 Kuyper의 신학사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것이었고, 그의 사상의 어느 한 면을 과도하면서도 그릇되게 발전시켜 적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Apartheid에 대해 최근으로 올수록 교회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 교단의 반응을 간략하게 논해 보고자 한다.

1. 로마 천주교

Yves Congar는 「The Catholic Church and the Race Question」이라는 저서에서 카톨릭 교회가 그 역사상 원리적으로는 우월인종(superior races)에 관한 이론을 배웠지만, 실제적으로는 개념주의적 방책을 썼다고 했다. South Africa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잘 나타내주는 증거의 장이 된다고 하겠다.⁶⁷⁾ 약 전 국민의 8.5%를 점하고 있는⁶⁸⁾ 남아공화국의 로마카톨릭적 교회는 최근까지 인종문제의 전면(前面)에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에서 전통적으로 개신교, 특히 DRC에 밀려 많이 위축되어 있는 카톨릭 교회는 그 교인도 흑인이 거의 차

May. 1968, o. Villa-Vicencio, p.380에서 재인용.

67) J. Verkuyl, op.cit., p.128.

68) P. J. Johnstone, op.cit., p.204.

지하고, 백인들은 불과 3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영어를 쓰는 교회(the English-speaking churches)가 1948년 민족당의 승리로 취해진 Apartheid 정책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발맞추어, 로마카톨릭교회도 그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같은 해 9월에 남아의 Hennemann 주교는 Apartheid 정책에 대해 엄한 경고를 발하였다.⁶⁹⁾ 1952년에 이르러 남아의 천주교 주교회의가 열려 'In the Natal'이라는 목회서신(pastoral Letter)을 내었는데, 그것은 Apartheid의 이념과 실천의 방면에 대해서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i. 인종의 상이성에 기초한 차별화는 비백인도 백인과 함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다.
- ii. 인종차별법은 기본권의 실행을 방해하므로 가정생활마저도 분열시킨다.
- iii.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비백인도 우리 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에 점차 참가할 기회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과 1977년에 주교들이 낸 'A Call to Conscience Addressed to Catholics by their Bishops'도 이러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⁷⁰⁾ 이상에서 볼 때 카톨릭의 의식 있는 주교들이 남아공화국의 인종 차별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비판이 인종 차별에 대한 성경적 접근의 비판이나 깊이 있는 분석에서 나온 성찰이라기보다는 실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비판을 가했음을 본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도, 또 마련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능력도 없이 그저 목

69) de Gruchy, op.cit., pp.97-98.

70) J. Verkuyl, op.cit., p.128.

소리만 발했다는 느낌이 든다.

2. 루터파 교회

1970년에 남아 정부가 발표한 루터교 신자 수는 87만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Lutheran 역시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처럼 그다지 전면(前面)에 부각되지 않는다. 루터교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로 나뉘져 있고 총회도 달리 했었다. 그러나 1966년에 여러 루터교 교회들과 총회들은 Namibia를 포함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곧 The Federation of Evangelical Lutheran Churches in Southern Africa(FELCSA)였다. 이 모임이 결성된 목적은 여러 루터교 공동체를 하나로 결집하고 또 남아에 있는 다른 교단들과도 교류를 가지려고 조직한 것이었다. 이런 연합운동이 이어져 1970년대 초에는 흑백 루터교를 하나의 교회로 합동(合同)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백인 교회의 무반응으로 네 개의 흑인 총회만 뭉친 상태에서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S. A.'가 1975년에 조직되었다. 흑인 루터교회는 인종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자신들의 노력을 Luther파 교회들의 통합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런 통합 노력은 대부분 독일어를 쓰는 백인에게 루터교 평신도의 보수적인 자세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975년 FELCSA는 '남아프리카의 루터교 신자들에 대한 호소(Appeal to Lutheran Christian in Southern Africa)'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편으로는 Luther파 교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인종 차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남아공화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치체제가 많은 오류와 오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전 체제가 성경의 계시와 인류의 보편적 경험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재고되고 재평

가되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⁷¹⁾

이러한 Luther 교회의 비판은 다른 단체의 비판에 비해 비교적 신중하고 온건해 보인다. 그것은 아마 카톨릭 교회와 달리 Luther 교회는 흑백 양진영이 분열되어 있으므로 이미 교회 내의 진정한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변화되지 않는 자가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듯이 흑백이 아직도 분리되어 있고, 또 인종 차별의 요소가 남아 있는 교회가 사회의 인종 차별 문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하기에는 무기력한 것이다. 먼저 백인계 루터파 교회들이 진정한 통합을 위해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3. 화란 개혁신교(The Dutch Reformed Church)

앞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DRC를 비롯하여 'Dutch Reformed Church of South Africa', 'The Reformed Church of South Africa' 등 화란계 개혁신교 교회들은 대체로 Neo-Kuyperianism을 표방하면서, Apartheid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기독교 민족주의의 이념을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서는 그 교회들 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⁷²⁾ DRC가 인종 문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두 가지 주요한 통합 문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한 문서는 1966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Human Relations in South Africa'인데, 그것은 총 52페이지에 달하는 것이었다.⁷³⁾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1974년도 총회에서 채택된 'Human relations and the South African Scene in the Light of Scripture'이다.⁷⁴⁾ 본래

71) de Gruchy, op.cit., pp.100-101, Hertz, Karl. H. Two Kingdoms and one world(Minneapolis: Augsburg pub. House), 1976.

72) J. Verkuyl, op.cit., p.126.

73) 영역본은 DRC 정보국에 의해 1966년에 나왔다.

진정한 개혁과 교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견해와 행동에 대한 유일한 규범임을 고백하는 자세인데, 이 문서들은 이러한 자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1974년도에 나온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DRC의 입장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우리 화란 개혁교회(DRC)는 남아공화국에 있어서의 국민들간, 인종들간, 그리고 인간들간의 관계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 교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국민과 개인들을 위한 사회정의, 인권, 자결권의 동일한 이상(理想)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적 소명을 성취하고 동정적이 되며, 또 성경에 따라 지침을 제공하고 인간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다면 그 차이는 도덕적 개념이나 가치 또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공화국에서의 상황에 대한 관점의 차이요 또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다. 이상과 목표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다만 이런 이상을 성취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불일치만 있을 뿐이다.”⁷⁵⁾

이런 보고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도덕성을 빙자한 간교하고도 교묘한 인종 차별정책에 대한 지지의 책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개혁과 교회의 성명이 운운한 “선지자적 소명”이나 “동정적”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이란 말인데, 이 용어의 배후에는 흑백 분리의 인종 차별주의가 농도 짙게 깔려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타교회와의 차이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74) 영역본은 DRC 출판사에 의해 1975년 Cape town에서 나왔다.

75) Human relations and the South African Scene in the Light of Scripture, p.100.

어설픈 논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의 사상과 칼빈주의의 전통을 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DRC에 의하면 결국 인종 차별의 이념이 깔려 있는 인종 분리발전정책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쓰는 ‘인종분리발전정책’이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인간의 잔꾀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개혁과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흑인계 신학자와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했다. DRC의 흑인 신학자인 Allan Boesak은 그 총회 보고서를 “downward Spiral(하향하는 螺旋)”을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혹평을 했다.⁷⁶⁾

4. Cottesloe 선언과 Christian Institute

1960년 12월, Apartheid의 어떤 측면에 대한 흑인들의 거센 저항이 진압되고, Bantu족의 모든 정치적 활동이 폐지된 직후, Cottesloe에서 W.C.C. 대표자들과 남아공화국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연합 회의를 열고 선언문을 작성했다. 그 선언문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구히 거주하는 모든 인종 부류들이 우리 전체 국민의 각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토착적 국민으로 간주한다. 이 인종 부류에 속하는 모든 이들은 그들 나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공헌하고 이에 뒤따르는 책임과 보상, 그리고 특권에 참여할 동등권을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누구나 자신의 피부색이나 인

76) de Gruchy, op.cit., p.74.

종을 이유로 어떤 교회로부터도 축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⁷⁷⁾

당시 Cottesloe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의 80%는 이 선언문에 동의
를 했는데, 그 후 Apartheid를 지지하던 세 개척과 교단들의 공의회에
서는 이것이 거부되어졌다. 이런 일로 인해 DRC와 Reformed
Church는 W.C.C.를 탈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Cottesloe 회의에 있어
서의 DRC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C. F. Beyers Naudé는 Cottesloe
선언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그리고 그 후 「기독교연구소
(Christian Institute)」를 조직화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Cottesloe 공회 이래로 발족하게 된 Christian Institute는 기독교 신
앙과 그것을 전 공동체에 적용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연구소
로서 모든 교단의 목사와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⁷⁸⁾ 이 연구소의 기
본 입장은 Apartheid를 분명히 거부하며,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정신에
서 복수인종적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⁷⁹⁾ 또한 그것은 신
학교육, 문학, 조합 같은 영역에서 「독립교회협회(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가 요구하는 것에 응하여 도움을 주는 일도
하였다. 1966년, DRC의 Bloemfontein 총회는 Christian Institute에
관계하는 모든 교단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그 연구소와의 관계를 단절해
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아의 27개 교단을 대표하는 「기
독교공의회(Christian Council)」는 그 가맹교단 및 추종자들에게 「기
독교 연구소」에 합세하도록 권고하므로 이에 강력하게 맞대응하게 되었
다. 「네덜란드 개척교회(Netherlands(Holland) Reformed Church)」
총회의 실행위원회는 DRC의 결정에 관한 보충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한 위원을 DRC에 보냈고, 화란계 개신교 신문인 Trouw는 DRC 결

77) J. Verkuyl, op.cit., p.128-130.

78) E. G. Hornighausen, "Aisis in the Churches of South Africa" Theology
Today Vol. XXIV, No.1, April, 1967, p.65.

79) J. Verkuyl, op.cit., p.132.

정이 “frightful(소름끼치는)”한 것이며, 또 그것은 신학적인 성격의 결정(決定)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DRC의 존경받는 지도자 B. B. Keet 교수도 그 결정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결과를 우려했다.⁸⁰⁾

5. 남아교회협의회(South African Council of Church)의 메시지

1968년 Uppsala에서 W.C.C.의 제4차 총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서 W.C.C.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 문제에 대한 총회보고서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인종차별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주제넘은 거부이다.

i. 그것은 자신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인종의 다양성에 차별적 대우를 폐지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하는 효력을 거부한다.

ii. 그것은 창조 속에 있는 우리의 공동적인 인간성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의 신앙을 거부한다.

iii.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인종적 동질성에 의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그릇된 주장을 한다.”⁸¹⁾

이 Uppsala 총회의 선언에 자극을 받은 「남아교회협의회(S.A.C.C.)」도 같은 해 7월 남아의 교회들에 보내는 긴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 메시지는 그 협의회의 신학위원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기독교 복음과 Apartheid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교회와 각 신자들에게 “학문과 행동의 기초”로서 고해진 것

80) E. G. Homrighausen, op.cit., p.65.

81) The Uppsala Report 1968, p.66., Paul Bock(ed.) In search of a Responsible World Society(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p.177.

인테, S.A.C.C.에서 간행되는 기관지인 「Kairos」에 나타난 반응들을 살펴보면 두려움과 회의, 그리고 서명에 대한 망설임이 있음이 드러났다. 공화국의 수상은 그 메시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남아 국민들에게 고함(A Message to the people of South Africa)”라 붙여진 그 메시지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각 부분의 첫 한 구절씩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신앙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구원과 안전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할 의무 아래 있다.

i. 기독교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그리고 역시 인간과 인간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ii. 우리의 관심 : 우리의 관심은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이다.

iii. 복음의 주장 :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구원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게 되며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길 기원한다.”⁸²⁾

이러한 메시지는 세계 W.C.C.의 일반적인 종교다원주의 경향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함은 물론 나아가 그것의 핵심은 장벽을 깨뜨려 하나됨과 우리 인간이, 또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하나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Apartheid의 이데올로기적 뿌리에 대한 대담한 도전을 시도하였다. 1934년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Barmen 선언(Barmener

82) J. Verkuyl, op.cit., pp.140-145.

Erklärung: 최초의 '고백 총회'라고 불리워지는 아르멘 총회는 1934년 5월 29-31일에 열린 것으로서 참석한 독일의 루터교회, 개혁과 교회가 만장일치로 히틀러의 제국주의를 통해 들어온 사탄의 세력을 거부하고 도전한다고 발표한 선언서)이 나왔을 때, 독일 밖에 있는 교회들이 침묵으로 일관하여 독일의 고백교회 대변자들을 고립하게 되었다. S.A.C.C.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W.C.C.는 이미 지지했지만, 남아의 개혁과 교회들과 교류 관에 있는 교회들은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6. Koinonia 선언서

아메리카 선교회(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에서 발행되는 'Missiology'의 1977년 1월호(Vol.V, No.1.)는 "1977: The Year of Crisis for Southern Africa - and the World"라는 제하에 남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 곧 Rhodesia, Namibia와 더불어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⁸³⁾ 이 Missiology의 예측은 과연 적중했다. 이제는 지금까지 Apartheid의 적극적 동조자 내지는 소극적 방관자로 일관했던 개혁과 신학자들이 그 해 11월 16일에 하나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이 소위 "코이노니아 선언(The Koinonia Declaration)"이다. 이 선언은 Potchefstroom에 있는 개혁과 교회(Gereformeerde Kerk)의 몇몇 인사들과 Transvaal 지역의 한 도시인 Germiston에 있던 일단의 칼빈주의 학자들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공적인 교회 문서가 아니지만, 남아의 정치 상황에 칼빈주의적 원리들을 적용하려는 철저한 시도이므로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 선언은 영어를 쓰는 교회들에서 열렬히 받아들여졌으며, 또 연합 회중교회(the United Congregational

83) Arthur F. Glasser, "1972: The Year of Crisis for Southern Africa - and the World"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V, No.1, Jan. 1977, pp.1-12.

Church)에서는 공적인 자료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역시 DRC와 Gereformeerde Kerk 총회에서는 냉대를 받았다. 그 선언문은 처음에는 사적으로만 배부될 수 밖에 없었지만 나중에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의 신문인 「Christian Leader」의 1978년 3월 자에 실리기도 했고, 또 같은 해 9월에는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에도 나오게 되었다.⁸⁴⁾ 이 “Koinonia 선언”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분량의 선언문이다. 각 장의 첫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이노니아 선언 :

개혁주의적(칼빈주의적)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서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1. 우리는 기독교 시민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확신한다.

2. 성정은 우리에게 민간 정부의 의무뿐 아니라 시민의 의무도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것에 의하면 민간 정부의 의무는 백성들을 그 영토 위에서 잘 보호하는 것이며, 더욱이 각 사람은 그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데, 이는 그가 유익하게 행할 수 있도록, 즉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됨이 없이) 하나님과 또한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의 동료와 동료 인간인 그의 이웃에게 대해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을 믿는다.

4.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며, 그의 공의는 자기 자녀들의 심령과 삶에 주입되어진 원리라고 믿는다.

5.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며, 이 유일성은 많은 다양성을 그

84) de Gruchy, op.cit., p.250.(Notes)

속에 포함한다고 믿는다.

6. 우리는 만민의 창조주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신자들에게 그의 말씀에만 따라서 삶을 영위하도록 과업을 주셨음을 믿는다.

7.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서 모든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민간정부와 백성들은 이를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나 정당도 남아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모든 것이 그에게서 시작하여, 그를 통하여, 그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방면에 있어서 겸손하게 기여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Koinonia 선언에는 이밖에 Biko 사건에 대한 추궁도 나오며, 제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칼빈주의적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선언은 1979년 5월 Pennsylvania의 Beaver Falls에서 열린 제46차 정통 장로교 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R.E.S. 문제위원회(Committee on RES Matters),”(위원장: Shepherd)가 제출한 ‘Race Relations in the South African Churches’에서 이 선언문이 다루어졌고, 또 그 전문이 총회 보고서에 실리게 되었다.⁸⁵⁾ 이 선언문은 남아의 개혁파 교회가 Apartheid에 대해서 신학적 지지만 보내고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비록 총회의 공적 지지는 얻지 못하고 일부 신학자와 지성인만 참가해서 만들었을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이 선언서에 Apartheid의 현실에 대한 단순한 긍정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온건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 우선 이 선언서는 인종차별 당하는 Bantu족들에 대해서

85)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Minute of the Forty-Sixth General Assembly(1979. May, 17-24), pp.150-160.

뿐만 아니라 압제적인 위정자와 정부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시적인 입장을 보인다. 말하자면 정부와 백성 양편을 다 향해서 하는 호소이다.

그러면서 이 선언서는 현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에 국민의 방향을 돌린다. 이것은 Apartheid의 현상을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보고 정치적 해결책만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교적 혹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신앙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진정한 칼빈주의의 모토인 하나님의 주권을 재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

이렇게 최근에 이르러서는 개혁주의 교회 내에서도까지 남아의 인종차별에 대해 철폐를 요구하고 또 온건한 정부에 의해 실제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Apartheid의 벽은 그 오랜 역사처럼 두꺼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요하며 문화적으로는 발달된 나라인 동시에 가장 슬프고 낙후된 나라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결어(結語)

세계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과 문제들을 다루는 월간지 『Current History』는 1979년부터 1980년까지를 “Academic Year”로 설정하고,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취급하면서 79년 3월호에는 Africa의 문제에 관해 특집으로 엮었다. 그 첫 번째 글이 “Human Rights in Africa: A Long-Awaited Voice”⁸⁶⁾였다.

남아 연방에서의 Apartheid의 철폐 - 참으로 이것은 그 글의 제목처럼 오랜 바램인 것이다. 비단 남아에 거주하는 흑인뿐 아니라, 백인의

86) Warren Weinstein(Director, Coordinating Council for International Issues)이 쓴 글이다. pp.97f.

일부,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그 실정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염원인 것이다. 아니, 이것은 지상의 인간의 바램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바램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해결은 남아공화국 내에 있는 뜻있는 그룹과 인사들, 그리고 국민 자체에 놓여 있는 것이다. J. Verkuyl은 남아의 현 상황에서 문제타결을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 조직체 내지 그룹을 몇 개 들고 있다. 즉 The Institute for Race Relations, South African Council of Churches, Christian Institute of South Africa, The University Christian Movement, 그리고 Stellenbosch와 Potchefstroom대학의 일부 교수, 학생 등이다.⁸⁷⁾ 그러나 진정한 희망의 징조는 백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유색인종, Bantu족, 그리고 Indian 공동체들에게까지 권력의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Apartheid 대신에 협동의 사회가 되기를 지향하는 개화되고 용감한 백성들이 많이 발흥하는데 있다.

Charles Villa-Vicencio는 남아공화국에서의 인종 차별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 신학적인 문제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아공화국의 백인(Afrikaner)들이 지닌 정치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의 결핍, 세계 시민권에 대한 분명한 거부, 백인종의 존립만 유지하는 것이 신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비성경적 망상, 그들의 비화해적 태도와 편견, 그릇된 이데올로기への 종속 등을 들고 있다.

사실 남아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 제도는 슬픈 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보다 더 슬픈 현상은 그런 제도를 만든 인간의 죄된 심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백인의 죄된 심성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런 제도에 투쟁하고 심성을 꾸짖어야 될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제도에 성경적 근거 내지 신학적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들 그릇된 교회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런 시도가 비성경

87) J. Verkuyl, op.cit., pp.147-149.

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영적 무지와 교회와 신학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 거대한 폭력의 기만술인 것이다. 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로 인해 복음의 문이 가로막히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는 것이다. 인종 차별 제도는 사실 앙리 레비(H. Levi) 같은 불란서의 신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만술을 지적하는 것처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장치의 그물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그릇된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백인 정부의 이러한 욕망 장치의 그물을 유지하고 지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과 복음을 팔아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제도의 이데올로기를 섬기는데 봉사하고 있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위선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소위 '기독교 민족주의'의 신학은 성경에서 이끌어낸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 국지적 상황에 맞춘 상황의 신학이다. 환언하자면 그것은 text에서 context를 향해간 신학이 아니라 context를 중심으로 text를 꼬집어 들인 신학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사상 뿐 아니라 신학도 그릇된 이데올로기의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아니 모든 그릇된 신학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우리가 찾는 결론은 남아공화국에서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나라들에서 인종 차별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신학은 상황을 중심으로 그것에 맞추는 신학이 아니라, 늘 성경 위에 서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개혁과 신학의 진정한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또 하나 덧붙일 결론적 고백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AACS(Association for Reformed Scientific Studies), *Christian Perspective 1962*, Hamilton, Guardian Pub. Co., 1962.

Biéler, Andre, *The Politics of hope*, Trans by Dennis Pardee, Grand Rapids: Eerdmans, 1974.

Bock, Paul(ed.), *In Search of a Responsible World Socie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Bockmuehl, Klaus, *Evangelicals and Social Ethics*, WEF, 1979.

Dooyeweerd, Herman, *The Christian Idea of the State*, New Jersey: The Craig Press, 1978.

Daane, James, *The Anatomy of Anti-Semitism and Other Essays on Religion and Race*,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65.

Falk, Peter, *The Growth of the Church in Africa*, Zondervan Pub. House, 1979.

Gerdener, G. B. A., *Recent Developments in S. A. Mission field*, London: Morgan & Scott., 1958.

de Gruchy, John. W., *The Church Struggle in South Africa*, Grand Rapids: Eerdmans, 1979.

Hepple, S. Alex., *South Africa - A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Praeger Library of African Affairs.

Johnstone, P. J.(ed.), *Operation World*, Bromley: STL Publication, 1979.

Hertz, Karl. H. *Two Kingdoms and One World*, Minneapolis: Augsburg Pub. House, 1976.

Kalanda, Paul, "Consolidating Christianity in Africa", *Missiology*, Vol.IV, No.4, 1976. Oct.

Kane, J. Herbert, *A Concise History of the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Kuyper, Abraham, *Christianity and the Class Struggle*, Trans by Dirk Jellema, Grand Rapids, Piet Hein Publishers, 1950.

-----, *Lectures on Calvinism*, 「칼빈주의」, 박영남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Funk & Wagnalls Co., 1900.

Lincoln, C. Eric., *The Black experiences in Religion*, Anchor Book., 1974.

Moore, Clark D. & Dunbar, Ann., *Africa Yesterday and Today*, Bantan Pathfinder Editions, 1968.

Neil, Stephan & Anderson, G. H. & Goodwin, John, *Concise Dictiona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Oliver, Roland & Atmore, Anthony, *Africa Since 12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Oliver, Roland & J. D. Fage, *A Short History of Africa*, Penguin Books, 1962.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Minutes of the Forth-Sixth General Assembly, 1979. May, Philadelphia: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1979.

Oosthuizen G. C., *Post-Christianity in Africa*, Grand Rapids: Eerdmans, 1968.

Sales, Jane M., *The Planting of the Church in South Africa*, Grand Rapids: Eerdmans, 1971.

Smalley, William A., *Readings in Missionary Anthropology*, William Carey Library, 1977.

Southall, Aidan(ed.), *Social Change in Modern Africa*.

Thiessen, John Caldwell, *A Survey of World Missions* Chicago, Inter-Varsity Press, 1956.

Turnbull, C. M., *The Lonely African*, Simon and Sohurter, 1962.

Umbiti, 「아프리카의 종교와 철학」, 현대사상신서.

Van den Berg, Frank, *Abraham Kuyper*, Eerdmans, 1960.

Van den Berg, Pierre, *South Africa, A Study in Conflict*,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Van der Walt, B. J., *Horizon,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1978.

Verkuyl, Johannes, *The Message of Liberation in Our Age*, Trans by Dale Cooper,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70.

-----, *Break Down the Walls*, ed. and trans by Lewis B. Smedes,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73.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Church and Nationhood*, WEF, 1978.

Young, William, *Towards a Reformed Philosophy*.

Droogess, André, "The Africanization of Christianity, An Anthropologicistic View" *Missiology*, Vol.V, No.4, The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1977. Oct.

Glasser, Arthur. F., "1977: The Year of Crisis for Southern Africa - and the World", *Missiology*, Vol.V, No.1, 1977. Jan.

Grotpetter, John, "Changing South Africa", *Current*

History, ed. by Carol L. Thompson, Philadelphia: Current History, Inc. Publication Office., 1980.

Tippetl, Alan. R., "Anthropological Dimensions in Missiology: Contemporary Writing by Africanists" *Missiology*, Vol.IV, No.4, 1976. Oct.

Loewen, Jacob A. "Mission Churches, Independent Churches, and Felt Needs in Africa" *Missiology* Vol.IV, No.4, 1976. Oct.

Haminghausen, E. G., "Crisis in the Churches of South African"(The Church in the World) *Theology Today*, Vol.XXIV, No.1, April, 1967.

Kalu, Ogbu U. "Theological Ethics and Development in an African Context" *Missiology* Vol.IV, No.4, 1976. Oct.

Villa-Vicencio, Charles, "South Africa's Theologized Nationalism" *The Ecumenical Review*, Vol.29, No.4, 1977. Oct.

「세계의 인권 선언」, 신동아 1975, 1월 별책부록, 서울: 동아일보사, 1975.

「전후 세계를 움직인 문제 논설」, 신동아 1979, 1월 별책부록.

「週間朝鮮」, 1977. 12월 18일자, "어떤 흑인의 죽음"(뉴스의 눈), 서울:조선일보사, 1977.